

30년만에 올림픽 성화 불꽃...KIA 8년만에 통합 우승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KIA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우승,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대, 육상 100m 김국영, 14년만에 ATP 투어 우승한 정현, 슈틸리케 전 축구대표팀 감독(위), EPL 2선수 최다골 손흥민, LPGA 신인 3관왕 박성현, 올 시즌 끝으로 은퇴한 이승엽.

1. 30년 만에 평창 올림픽 성화 국내 봉송

‘평창 성화’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 도착해 전국을 돌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는 평창올림픽 성화는 지난 10월 24일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채화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11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평창 성화는 인천을 출발점으로 101일 동안 7500명 주자에 의해 2018km의 대장정에 나섰다. 성화 주자 7500명은 남북한 인구를 뜻하고, 2018km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 연도를 의미한다.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옮겨진 성화는 내륙 봉송의 첫 관문인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창원, 목포, 광주, 대전, 천안, 구미, 대구, 포항, 경주, 인천, 서울, 파주 등의 경로 이동한 뒤 2018년 2월 9일 올림픽 개막 당일 평창에 도착한다.

1. 한국, 천신만고 끝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

한국축구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시작으로 9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부진한 경기력 탓에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가 마지막 경기까지 가서야 겨우 티켓을 거머쥐었다. 최종엔선 도중 2014년 9월부터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던 당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33개월 만에 경질되는 극약 처방이 내려졌다. 리우올림픽 대표팀을 맡았던 신태용 감독이 새 사령탑에 올랐다. 최종엔선 마지막 두 경기를 2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다. 신태용 체제로 바뀐 대표팀은 이란과 홈 9차전에서 0-0으로 비겼다. 이어 마지막 우즈베키스탄과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비겨 최종엔선 A조에서 이란(승점 22)에 이어 2위(승점 15)를 확정, 본선 직행 열차에 올랐다.

3. LPGA 박성현 열풍...39년만에 신인 3관왕

여자골프 최고의 무대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올 해 정식 데뷔한 박성현(24)은 신인을 넘어 최고 여자 골퍼 자리에 올랐다. 3월 HSBC 위민스 챔피언스 3위로 정식 데뷔 첫 무대를 출발한 박성현은 메이저대회인 7월 US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8월에는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시즌 2승을 달성하며 대체 자리를 굳혔다. 올해 출전한 23개 대회에서 ‘톱10’에 11차례나 이름을 올린 박성현은 일찌감치 신인왕을 확정했다. 후반기 상금 선두를 달리며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도 공동 6위를 차지한 박성현은 데뷔 첫해에 상금왕에 올랐다.

3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올림픽 성화와 축구대표팀의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2017년 한국 체육계에 서 가장 관심을 끈 뉴스로 뽑혔다. 연합뉴스가 광주일보 등 전국 주요 언론사의 스포츠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2017년 스포츠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타오른 평창 불꽃...30년 만에 올림픽 성화 국내 봉송’과 ‘한국축구, 천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항목이 나란히 388점을 받아 공동 1위에 올랐다. KIA 타이거즈가 8년 만에 정규리그에 이어 한국시리즈까지 통합우승을 차지한 것은 네 번째로 많은 점수를 받았다. 총점은 1위 표 10점, 2위 표 9점, 3위 표 8점 순으로 10위 표까지 순위별 차등 점수를 매겨 이를 더했다.

4. KIA 8년만에 통합 우승...양현종 MVP

KBO리그 한국시리즈 최다 우승팀 KIA 타이거즈는 2017시즌 ‘왕좌’에 복귀하며 우승 횟수를 11번으로 늘렸다. 시즌을 앞두고 최형우를 4년 총액 100억원에 영입한 KIA는 전반기 강력한 타선을 앞세워 선두로 치고 나섰다.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은 가공할만한 KIA 타선을 설명한 키워드다. 두산을 2게임 차로 뿌리치고 정규시즌 마지막 날 우승을 확정지은 KIA는 두산과 한국시리즈는 4승 1패로 끝냈다. KIA의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우승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건 에이스 양현종이다. 정규시즌 20승 6패 평균자책점 3.44로 1995년 이상훈(LG) 이후 22년 만에 ‘도종 20승’을 달성한 양현종은 한국시리즈 2차전 완봉, 5차전 세이브를 수확했다.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통합 MVP를 석권하고 골든글러브까지 품었다.

5. 굿바이 이승엽...KBO 리그 첫 은퇴 투어

‘국민타자’ 이승엽(41·삼성 라이온즈)은 마지막까지 ‘홍련왕’의 위용을 잃지 않았다. 이승엽은 10월 3일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 2017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연타석 아치를 그렸다. 팬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승엽은 2017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이승엽은 일찌감치 자신이 은퇴 시점을 정했다. 아쉬워하는 팬들의 목소리에도 “떠날 때가 됐다. 내가 현역으로 남으면 팀에 부담만 안긴다”며 “2017시즌 뒤 은퇴”를 선언했고, KBO리그는 최초의 은퇴 투어로 국민타자를 예우했다. 8월 11일 대전을 시작으로 9월 30일 잠실까지, 9개 구단은 방문 팀 타자 이승엽을 위한 은퇴행사를 열었다. 9개 구단은 의미있는 ‘은퇴 선물’을 전달하며 한국 야구 최고 스타의 마지막 길에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이승엽은 한·일 통산 626개에서 홍련 시계를 멈췄다.

6. 손흥민 EPL 아시아 선수 최다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25)이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서 세운 기록을 줄줄이 갈아치웠다. 손흥민은 4월 왓퍼드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시즌 10호·11호 골을 넣으며 기성용이 보유한 아시아 선수 EPL 정규리그 시즌 최다골(9골)을 넘어섰다. 5월에는 차범근이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한 한국인 한 시즌 유럽리그 최다골(19골)을 31년 만에 경신했다. 손흥민은 박지성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 선수의 잉글랜드 통산 시즌 최다골 기록(27골) 역시 새로 썼다. 손흥민은 6월 카타르와의 러시아월드컵 최종엔선 경기에서 손목을 다쳐 2017-2018시즌 득점 행진을 다소 늦게 시작했지만 11월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3호골 EPL 통산 20번째 골을 뽑아 냈고, 박지성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EPL 골잡이로 우뚝 섰다.

7. 10초07...김국영 육상 100m 한국신

김국영(26·광주광역시청)이 한국 단거리 육상의 역사를 새로 썼다. 김국영은 6월 27일 2017 코리아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 남자 100m 결승전에서 10초07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국영의 다섯 번째 한국신기록이다. 김국영은 2010년 6월 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31을 기록, 한국기록 10초34를 31년 만에 바꿔냈다. 그리고 당일 준결승에서 10초23으로 또 한 번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5년 동안 10초2대 벽과 싸우던 김국영은 2015년 7월 9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10초16으로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6월 25일 10초13까지 기록을 단축했고, 이를 만에 다시 10초07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한국 육상 단거리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결승 무대에 오르는 쾌거도 이뤘다.

8. 슈틸리케 경질...축구대표팀 감독 수난

‘갓(God)틸리케’라고 불리던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이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졸전을 거듭하다가

끝내 경질됐다. 지난 3월 중국 참가 원정경기에서 0-1로 패했고 6월 약체 카타르와 원정경기에서도 2-3으로 저 본선 진출마저 위태롭게 됐다. 팬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한 대한축구협회는 결국 슈틸리케 감독을 퇴진시켰고 이웅수 기술위원장도 함께 물러났다. 이어 ‘전문 소방수’ 신태용 감독이 선임됐지만 이란과 홈 경기에서 수적 우위에도 0-0 무승부를 기록했고, 마지막 우즈베키스탄과 원정경기에서도 0-0으로 비기면서 비판의 새로운 타깃이 됐다. 다행히 시리아가 이란과 무승부를 기록한 덕에 한국은 월드컵 진출에 성공했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이런 상황에서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거스 히딩크 감독 부임설까지 터져나와 더욱 큰 혼란을 겪었다.

9. 태릉선수촌 역사 속으로...진천선수촌 개촌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공식 개촌과 함께 51년 간 금메달 산실 노릇을 해온 태릉선수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진천선수촌은 지난 9월 27일 개촌식을 열고 진천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159만 4870㎡ 부지에 조성된 진천선수촌은 시설과 규모에서 세계 최대 종합 스포츠 훈련 시설을 자랑한다. 총 5130억원을 투입해 작업 8년 만인 올해 9월 완공된 진천선수촌은 속도 8개 동 823실, 21개 훈련 시설을 갖춰 최대 35개 종목 1150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훈련할 수 있다. 속도 3개 동 358실, 12개 훈련소에 불과하던 태릉선수촌보다 훨씬 큰 인프라다.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메디칼센터와 스포츠과학센터는 태극전사들의 메달 획득을 도울 최대 지원군이다. 태릉선수촌 건축물 7동과 운동장 1기 등 8개 시설의 문화재 등록을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 중이다.

10. 테니스 정현, 14년만에 ATP 투어 우승

한국 테니스의 희망 정현(21·한국체대)이 14년 넘게 끊어졌던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에서 한국 선수의 명맥을 이었다. 정현은 11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ATP 투어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단식 결승에서 안드레이 루블레프(20·러시아)를 3-1(3-4(5-7)-4-3(7-2)-4-2-4-2)로 제압하고 자신의 첫 투어 대회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올해 5월 BMW오픈 4강이 자신의 투어 최고 성적이었던 정현은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면서 한국 선수로는 무려 14년 10개월 만에 ATP 투어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한국 선수가 ATP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03년 1월 이형택이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정상에 오른 것이 최근 사례였다. 개인 최고 랭킹은 올해 9월 44위,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올해 프랑스오픈 3회전(32강) 진출이다.